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9 서리집사 · 교구일꾼 임명

Ⅲ부 예배 후 교구총회 ... 서리집사 735명 내년 봉사말아

신임 서리집사 54명

1999년도 서리집사 임명식이 오늘 I·II·III부 예배 시 있다.

내년에 봉사할 서리집사는 남자 303명, 여자 432명 등 모두 735명이다. 이중 처음으로 임명받는 서리집사는 54명이며 이들은 당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 달 교육과 면담을 거쳐 오늘 임명을 받게 됐다.

35명의 부지역장, 237명의 남·여 다락방장 그리고 12명의 교구간사, 171명의 권찰 등 99년 교구일꾼 임명식도 갖는다.

교구 총회 후 교구별 속회

99년 교구총회가 오늘 III부예

배 후 1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오늘 모이는 교구총회는 교구장, 지역장, 부지역장, 남·여다락방장, 권찰, 간사 등 내년에 수고할 교구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구총회가 끝난 후 이어 교구

별 속회가 열린다. 속회에서 교구일꾼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담당 교역자와 안전 토의에 들어가게 된다.

교구별 속회 모임 장소는 1·2교구는 3층 소망부실, 3·4·9·10·11·12교구는 1층 예배실, 5·6·7·8교구는 2층 예배실이다.

1999년도 교구위원회

교구위원장 정병무 장로 교구위원회 지도 박귀환 목사

12개 교구장 등 일꾼 임명

또한 집사 임명식에 이어 12개 교구의 교구장, 112명의 지역장과

*

작은 순례자의 합창

초동부에서는 '작은 순례자의 합창'을 12일(토) 오후 5시 1층 예배실에서 개최한다.

6회째를 맞는 이 잔치에서는 초동부찬양대 주관으로 합창,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교구	지도	교구장	간사	다락방
1	이성득	오정수, 임광식, 이용선	임송자	논현, 신사, 청담, 압구정, 삼성
2	이성득	정병무, 하영수	허상한	역삼, 개나리아파트, 영동아파트, 성보아파트
3	이순환	김상철	정동호	대치, 도곡, 개포, 일원, 수서, 자곡, 양재
4	이순환	김태기	박미혜	반포, 잠원, 서초, 방배
5	김정현	노문환, 노송성	백수남	과천, 안양, 의왕, 평촌, 사당, 봉천, 상도, 신림, 군포, 수원
6	김정현	민순구	김정란	영등포, 양천, 강서, 구로, 광명, 부천, 인천, 목동, 안산, 시화
7	김정현	김영준, 나희주, 박두호	최정화	용산, 중구, 종로, 마포, 서대문, 일산, 고양, 은평
8	김정현	이영기, 서문석	제오복	삼선, 안암, 미아, 수유, 우이, 쌍문, 월계, 상계
9	박귀환	윤봉준	최영란	중곡, 구의, 자양, 성수, 홍파, 금호, 옥수, 중랑, 남양주
10	박귀환	최종시, 성준경	김선영	둔촌, 길동, 명일, 성내, 광주, 양평, 이천, 청주, 샌프란시스코
11	박귀환	박철준, 홍정호, 왕경래	허 숙	신풍, 잠실, 송파, 휘필리, 가락, 문정, 오금
12	박귀환	김광신, 이남호	최일준	성남, 분당, 수지, 신갈

비전2020

오늘 승전 보고

'98비전2020운동 승전보고가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있게 된다.

10월 4일에 11월 22일까지 50일간 진행해 온 '98비전2020운동 기간 동안 성도들은 노방전도, 축호전도, 잃은양 찾기 등 전도운동을 전개했으며 일주일간 새벽 시간에 전도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새벽기도회, 50일 연속기도회 등 기도운동도 전개했다.

비전 2020 운동이란 주님의 지

상명령을 실천함으로써 2020년까지 전국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75%인 3,700만 명을 그리스도에 개로 인도하자는 운동으로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어 약 900여 교회 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속기도회 연2, 181명 참가

'98 비전2020운동 기간 중 이어진 40일 연속기도회에 연인원 2181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운동에 대한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의 지원 열기를 반영했다.

비전2020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부터 시작된 40일 연속기도회에 모두 384명이 참가하여 연인원 2181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참가 인원은 권사회기도회나 금요기도회를 제외한 수치여서 민족 75% 복음화의 목표를 위해 쏟는 성도들의 간구 정도를 가늠케 하고 있다.

참가 시간별 기도회 참가인원 현황은 10시간 미만인 320명 참가에 연인원 934명, 10-20시간이 32

명 참가에 연인원 398명, 20-30시간이 14명 참가에 308명, 30-40시간이 9명 참가에 연인원 221명이 있으며 40시간 이상인 9명 참가에 연인원 3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연속기도회에 20회 30시간 이상 참가한 성도도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참가자(20회 30시간 이상)=나옥녀, 문현미, 박순봉, 박태희, 배영애, 오은이, 이옥녀, 이점숙, 정호진, 김계순, 김숙자, 송해숙, 원복순, 이용선, 이현주, 전용순, 박용현, 고후덕

이사야 강해

바벨론의 멸망

이사야 14장 5-11절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의 왕을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개인, 민족,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밤에 죽음을 맞이한 벨사살 왕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그 유명한 독재자인 차우세스쿠의 결국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등 세상의 권력자들의 마지막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직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앞에서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과 그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용감하게 외칩니다.

1.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동동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 한 것이 범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제적인 문제와 전쟁과 질병 가운데 어떤 벌을 택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삼하 24:13). 결국 그때 이스라엘에는 질병의 벌이 내려져 한 날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불신앙에 빠져있을 때 내려집니다.

‘강포한 성’ (4절)이란 바벨론 사람들 자신이 자기들을 부른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황금성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어 바벨론 사람들이 황금을 갈망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국을 엮은 자’ (12절)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모두 자기 것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황금을 좋아 하는 바벨론을 황금몽둥이로 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부를 누렸을 뿐 아니라 권세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남을 학대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4절). 또 이 권세를 가지고 쉬지 않고 악을 행하여 세계를 황무케 할 만큼(17절) 바벨론 왕의 영화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꺾으시겠

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가 없다 하는도다”(8절).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노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살아있을 때는 악한 짓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죽고나니까 이제는 나무들조

“여호와께서 악인의 동동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본 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치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합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중윤 목사



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부같이 연합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10절). 시체가 묻힐 곳조차도 없이 비참해질 것입니다(19절). 결국 바벨론 왕은 많은 사람들의 노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서 처참하게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온 땅이 평온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7절).

독재자가 사라지고 나니 온 땅이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요동하던 악이 제거되는 날, 마음과 육신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과 같이 바벨론이 망하는 날 온 세상이 평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밖에서 오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누르는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악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 악이 없어지고 나니까 온 세상이 고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자연도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

차도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9절). 그리고 “너도 우리같이 연합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고 비웃습니다.

예배당 출입만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서만 물려집니다. 자신의 죄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가장 경건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지옥에서 바벨론 왕을 만났으니 그를 환영하고 비웃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것도 비참한데 그 속에서 서로 물고 찢으며 덤벼들 터이니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1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개인과 한 국가의 멸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회개하고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작은 달란트 시장

임희춘 집사(사랑부 교사)

삼십개월 뒤 눈앞에 보일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갖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 우리 사랑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지금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이기도 해서 사랑부는 예산절약의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찬송부르기, 여름성경학교, 성경암송, 봉사활동을 통해 상품 대신 '달란트'를 주었다. 사랑부에는 여러 층의 신체장에 및 정신지체 아이들이 모여 한 가족이 되어 사랑으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간다. 장애아동들의 특색에 따라 달란트를 잘 간수하지 못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대신 맡아 두었다.

11월 마지막주, 드디어 아이들은 오랫동안 모아온 달란트를 사용할 기회를 얻었다. 여러 선생님들도 이를 위해 평일에도 시간으로 몰질로 달란트시장을 위해 숨은 봉사를 해왔다. 이에 따라 먹거리, 문구류, 책, 인형, 액세서리, 옷, 양말 등이 선생님들의 따뜻한 손을 거쳐 마련됐다.

달란트 시장이 열리는 날이 됐다. 아이들은 그동안 꼭꼭 간직했던 자기 보물들을 모두 챙겨서 또 출석않던 아이들까지 데리고 교회로 몰려들었다.

파리에 있든 서울에 있든

주옥환 권사(4교구)

해마다 12월이 되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더러는 구겨진 채 빛 바랜 낙엽처럼 뒹구는 아픔을 느낀다. 올해도 예수님 생신을 맞이하기 전에 얼마만큼 주님 곁에 더 다가설 수 있을까?

삼년 전,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 보내고 파리에 있는 큰딸에게 자주 가 있다 보니 "교회를 옮겼냐"는 얘기까지 들었다. 그러나 몸은 비록 멀리 떠나 있었어도 고국과 서울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는가를 우리 주님은 아실 것이다. 육신이 연약해서 나서서 봉사하지는 못한 나는 교회 일이라면 두 팔을 걷고 앞장 서

사랑부 지도인 조대영 선생님이 사도행전 4장 32-35절 말씀으로 "나누어 주며 살래요"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받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나눔을 대접하며 나눠주고 사랑의 선물로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은 힘차게 "아멘"으로 대답했고, 장로님의 기도로 달란트 시장은 개장됐다. 선생님과의 아이들은 기쁨으로 활짝 핀 얼굴로 자신들에게 맞는 물건을 고르며 행복해했다. 질서정연하게 참석하는 아이들의 모습만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하며 준비한 이들의 덕분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만유보다 큰 손이 계시기에 사랑부 식구들의 마음은 더없이 행복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의 달란트로 바꾼 물건을 선물로 받은 교사들은 마냥 기뻐기만 했다. 아이들도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때 큰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맛보게 되었다.

평가를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좀처럼 사회에 접하기 어려운 사랑부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경제활동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교회 교육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실제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내년에도 적은 투자를 해서 높은 교육효과를 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계속적으로 시행기로 했다.

이 글을 쓰면서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 좀더 성숙해진 사랑부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다 시금 떠올려 본다.

서 숨은 봉사를 아끼지 않던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허나 내 육신이 약한 것조차 바울에게처럼 자고하지 말라고 주신 몸매 찌르는 가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곤 한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할 일 많은 서울교회 교인으로서 기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눈물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 서울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련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선 파리에 작은 기도처를 허락해 주셨다. 혹시 파리에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신 성도는 언제든지 들르시면 고향집 뒷마루에서 풍겨 나던 맛갈스런 된장찌개를 맛보실 수 있을 것이다.

올 성탄절엔 서울교회에서 정다운 얼굴들과 함께 성탄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얼마남지 않은 98년을 잘 다듬어 곱게 접어두고 새해에는 주님앞으로 한 발자국 성큼 다가선 모습으로 서있고 싶다.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온가족이 명동길을 나갔다. 뭐 별다른 것을 기대했다기보다는 웬지 오랜 빛바랜 사진을 보는 기분이 들 것 같아 밤공기를 갈랐다. 시내 거리로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보고 싶었고 그리로 가면 12월 들면 느끼는 성탄절의 한쪽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무거운 장비를 쓰고 들고 선 전경들 틈을 지나 명동 성당 앞 하얀 천막, 노래하는 길가의 가수도 결눈으로 보고 걸었다. 어느 신문이든 지면 한쪽의 네모난 사진 안에 쉬 보던 광경이 햇살도 없이 어둡게 깔려 있었다. 그 어디도 성탄의 우뚝한 의미를 받치는 그림자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서 한 호텔 벽에 통속적인 인사말 현판에 반짝이는 등을 붙여 놓은 것을 보았다. 이어 가게 유리창에 간단하고 작고 예쁜 점멸등이 속속 보였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장로님이, 숨어 봉사하시는 성도님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쁨을 알리려 입구를 아름



답게 장식한 것일까? 아니면 혹 그 수고한 순수함도 모른 채 매상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 보려고, 대목을 한몫 잡아보려는 알뜰한 장사치수라고 얼핏 치부하는 건 엄청난 오해일까? 그나마 그것도 아주 간간히 눈에 띈 정도였다.

잘 깨닫지도 못했던 사회 위기에 이어가 시적인 경제위기가 드러나면서 요즘 거리 풍경은 생경하기조차 한 느낌이 든다. 한쪽에서는 일부 운동 경기에 뛰어난 성적을 보였던 몇 사람을 희망의 촛불로 선전하느라 눈과 귀를 바쁘게 했고 한쪽에선 절박만이 살길이라며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우리 허리띠를 당기기도 했던 기억이 올해의 중간 중간에 끼어 있었었다.

약하고 잘도 넘어지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은 단지 조금 씩씩이를 즐기면 곧 괜찮아질 것이라며 거리를 어둡게 하는 것으로 덮어 둘 것은 아닐 것만 같다. 힘닿는대로 눈에 보이는 가정과 직장 이웃에는 조그만 깜짝등이라도 달아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주위 이웃들에게는 작더라도 위로의 말과 손을 펴보자. 12월은 어둡게 움츠러드는 달이 아니라 주위를 밝히고 서로 어깨를 감싸는 감사의 달이 되었으면 한다.

“99년엔 여성도님도 차량위원으로”

차량관리부에서는 새해부터 주
일, I·II·III부 및 찬양예배에 맞
춰 수고하실 차량위원을 찾고 있
다. 특히 이번 차량위원 모집에서
는 기존 남자 성도 일색에서 탈피,
여성 성도 중에서도 희망자를 찾
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차량관리부는 주일예배에 참석
하는 성도들의 교통 편의를 돕고,
차량을 보호하며, 협소한 차량공
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일에
봉사하고 있다.

예배 시간대별 필요한 차량위원

예배	봉사 시간	필요 인원수	구분
I부	오전 8시 - 오전 10시30분	12명	남성도
II부	오전 10시 - 오후 12시30분	16명	남성도
III부	오후 1시 - 오후 3시30분	12명	남성도
찬양예배	오후 4시 - 오후 6시30분	12명	남성도
교통안내	오전 8시30분 - 오전 10시30분	4명	여성도
(교회앞 횡단보도)	오전 10시30분 - 오전 12시30분	4명	여성도

순례자 컬럼

예수님의 족보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족보는 있었다.

성령에 의해 처녀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 대라고 했다. 다윗 왕이 두 번씩이나 반복된 것은 예수가 만왕의 왕되심을 계시한 것이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아담에게까지도 소급됨으로써 예수가 만민의 구주되심을 또한 가르쳤다.

예수의 족보 상엔 여인의 이름도 নে이나 나온다. 그 중 셋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이들이었다. 시아비와 간통한 다말, 기생 라합, 그리고 다윗의 정부가 된 밋세바이다. 이들의 이름이 메시아 족보에 기록된 것은 은혜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훌륭한 족보를 따라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오히려 죄
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오
셨음을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
게 가르친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0일(목)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민영수 목사는 11월 30일자로 일산 승리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했다.
- ◇김한성 성도(대학부, 2교구 김영주 집사·이혜순 권사 아들)는 제 40회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했다.
- ◇오늘 점심식사는 허진자 권사·강주형 성도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 수료식

오늘 찬양예배 시 196명에 수료증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 수료식
이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있다.

오늘 수료식에서는 9월 첫 주에 개강하여 지난 11월 셋째 주까지 10주간 진행해 온 읍기반(아담반), 룯기반, 마태복음반, 요한서신반, 요나반 및 음악교실의 한 학기를 돌아보고 종강을 감사하는 순서를 갖게 된다. 한편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오늘 수료하는 인원은 총 196명
이다.

수료자 명단

오키반 (57명)

김영주 김용무 김원근 나종영 박두호
박병수 박철원 서문석 유 신 유을상
윤운식 윤찬오 이경구 이남성 이승우
이양철 이영기 임훈규 정병무 조철기
하영수 홍성주 강애자 김복녀 김은애
김인숙 김인순 김현주 나미용 노영숙
방계운 송두심 송옥혜 안정옥 여현진
오은이 윤문자 이규희 이민화 이승민
이영숙 이영숙 이은희 이점숙 이혜순
전용순 전인화 정연택 조상희 조정옥
최난수 최영란 최영순 최정숙 최정자
홍슈복

롯데기반 (32명)

강영자 김인수 김인순 김복녀 김현주
김유정 김현정 김수영 박분옥 송정희
승영강 심재을 여영숙 원영애 유복달
윤문자 이규희 이남복 이승희 이혜순

임송자 장효옥 조봉환 주화인 정정옥
진경옥 차복녀 최금자 함송현 한금희
허 숙 허현숙

요한서신반 (22명)

박병수 김하중 정병무 이관규 서문석
오은희 조정옥 이민화 전인화 손재경
김제순 김상옥 여영숙 송두심 최영순
이남복 박경희 강애자 이순영 김명옥
이부자 민마리아

요낙반 (41명)

강정옥 구 홍 권순단 권지희 김명철
김선미 김은애 김정희 김준근 나상민
노대희 박경희 서춘식 오광환 오세정
왕경래 왕원희 왕지윤 이경구 이미연
이민하 이순녀 이안순 이용자 이자혁
이재운 이점숙 이채봉 장명순 전배호
정병무 정연택 조정옥 주경자 최금자
최용길 최일춘 최재규 최재춘 최혜순
허상환

마태복음반 (30명)

강혜신 노애리 전춘자 황기봉 김미선
송향란 김계순 이민화 정병무 전배호
최일춘 최옥길 송두심 박경희 정경옥
임송자 김영미 주경자 이지혁 윤복순
최죽희 권기옥 손지희 김병순 한선규
문희정 심은영 이대중 최근자 주정희

음악교실 (14명)

김원웅 김규희 김진경 이경진 이순신
김인수 김영주 유 신 조상희 이채봉
정병무 이해순 정봉금 이영주
(이상 196명)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I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4시 50분

*차량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로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
2. 교회의 연말연자 행사를 위해
3. 대강절 기간동안 성탄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